

# 경유-LPG, 자동차연료 시장쟁탈전

## 에너지세제 개편 따라 가격차이 논란 ... 경유차 도입으로 환경문제도

정유기업들과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기업들이 자동차 연료 시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및 환경개선 정책의 향방에 따라 경유와 LPG 가격이 크게 변화하게 되자 정유, LPG 공급기업들이 각각 근거자료를 내세우며 동조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경유와 LPG의 상대가격으로 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 대 경유 대 LPG의 가격비율을 100대68대49로, 2006년 7월부터는 100대75대60으로 조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LPG 공급기업들은 정부의 계획이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경유승용차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LPG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가격비율을 100대85대50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PG 공급기업 관계자는 “경유승용차가 도입되면 많은 국민들이 LPG 차량 대신 경유승용차를 타게 되고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LPG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비율이 100대85대50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택시와 레저용 등 LPG 차량 175만대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LPG 차량 보유국이라는 점과 LPG가 실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청정연료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유기업들은 LPG 공급기업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LPG에 대한 경유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유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2003년 국내 LPG 소비량의 57.3%를 수입해 수입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LPG 공급기업들의 주장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OECD 국가에서 LPG를 포함한 기타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에 불과한 상태에서 OECD 수준의 100대85대50 가격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유와 LPG의 이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24>